

“경제, 그 너머 보는 것의 기쁨...행복 메시지 됐으면”

<9> 전정연 작가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畫). 녹색과 청색 안료를 주조로 하는 그림을 뜻한다.

청록산수를 주제로 다양한 변주를 펼쳐오고 있는 전정연 작가를 지난 4일 만났다.

그의 작업은 일상 속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과 어우러진 ‘결합된 산수’는 대학원 박사 과정 중 선보인 작품 연작이다.

이 시기 작가는 산수와 꽃다발을 결합한 ‘산수다발’ 시리즈도 함께 병행했다.

“학교 동문들의 전시가 많이 열리는 시기에 수많은 꽃다발과 화환에 눈길이 갔어요. 일반적으로 꽃은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받았어요. 꽃다발을 모티브로 어느 때나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죠.”

그의 산수는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과 사유 공간으로도 표현됐다. 하얀 돌가루인 방해말, 아교를 섞어 하나하나 쌓아 올린 눈의 흔적들은 입체 작품 ‘형상기록’으로 만들어졌다.

“중종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복잡한 인간관계나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니까요. 새벽녘 생각을 정리할 겸 나간 산책에서 본 ‘눈 자국’이 작품 속에 투영됐어요. 겨울날 소복하게 쌓인 눈이 마치 산의 형태와 닮아 있었거든요.”

중국 화가 장대천의 산수화 ‘황산운해도’에서 영감을 받은 ‘형상기록’ 연작 또한 눈 자국을 쌓아내며 완성한 작품으로, 산과 구름이 조화를 이룬 화폭 위 독특한 질감이 특징이다.



‘형상기록_군집된 형상’



일상 속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재료의 변주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전정연 작가. / 김충식 기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 속 사물, ‘청록산수화’로 탈바꿈
눈 흔적 쌓아낸 ‘형상기록’, 假山문화 의미 담아낸 ‘섬’ 등 다채
“작가로서 성장해야 할 시기, 다양한 변주의 작업 이어나갈 것”

최근 작가의 작업은 더욱 확장된 입체 작품으로까지 나아갔다. 박사 논문을 쓰던 중 ‘가산(假山)문화’를 공부하면서 이를 작품에 투영시켜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조선시대에는 집을 짓다 남은 흙과 돌로 마치 산과 같은 조경을 꾸미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종이를 붙이고 남은 조각으로 산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나타내는 파란색 시트지 위 작은 섬을 표현했죠. 우리



‘섬’

가 사는 공간은 전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무수한 경험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상으로 만든 섬은 자연과 인공이 섞인 공간으로, 흔재된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작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전공강사로 학생들의 수업지도를 맡고 있다. 작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다는 질문에 작가는 아이들에게서 작업의 해답을 찾거나 작품활동의 원동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모색해가고 있는 작가는 현재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



‘산수다발’

“제 작업이 몇 년 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직 배워야 할 점도 많고, 작가로서 성장해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평면 회화든, 입체 작업이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힘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작품이 사람들에게 편안하면서도 기분 좋은 인상을 주길 바라요. 최근 작업은 남은 종이를 물에 불려 계속해서 쌓아가고 색을 입혀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나중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석조 등 깎아내는 기법을 배워 작품에 적용해보고 싶어요.”

/ 최명진 기자



‘형상기록_황산운해도(黃山雲海圖) 1’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p>01 무면허 운전</p> <p>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p> <p>범칙금 10만원</p>	<p>02 승차정원 초과</p> <p>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p> <p>범칙금 4만원</p>	<p>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p> <p>범칙금 2만원</p>	<p>04 음주운전</p> <p>운전면허 정지·취소</p> <p>범칙금 10만원</p>	<p>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과태료 10만원</p>
---	--	--	---	---

